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포함)사업 심의 총평

1. 음악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9일(월) 10:00~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경식, 이규봉, 이재신, 정지교, 한경진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무대기술 인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예술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예술단체와 지원 인력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은 34세 이하의 문화예술 전공 청년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대기술인턴’ 지원은 39세 이하의 무대기술 입직 희망자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예술단체의 창작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염두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장을 두지 않고, 모든 심의위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었으며,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심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기준은 총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의 인력 운영 적정성(30점)으로, 단체에서 신청 인력이 수행할 직무가 해당 직종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신청 인력의 직무가 단체의 예술 활동과 목적에 맞는지,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40점)으로,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의 수준, 그리고 신청 인력이 단체와 예술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30점)으로,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단체가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평균 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단체는 신청 인력의 100%를 지원하였고, 평균 점수가 90점 미만인 단체는 8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우수한 성과와 계획을 가진 단체를 더욱 독려하는 한편, 신청 단체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인력의 직무와 직종의 적합성입니다. 문화예술 연수단원의 경우, 예술기획, 창작실연, 무대기술 등의 직종과 실제 직무가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소규모 단체에서는 다방면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사업의 취지와 명확히 상이한 직무를 포함한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의 예술활동과 조직 역량입니다. 단체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예술활동의 성과와 신청 인력의 역량 개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술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인력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 단체의 주요 활동 실적과 조직의 체계적 구성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금 투입의 정당성과 효과성입니다. 신청 인력의 배치와 지원이 단체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와 사회적 가치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사업의 심의 대상 현황은 수도권이 66건(64.7%), 비수도권이 36건(35.3%)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 과정은 총 5명의 심의위원과 7명의 사무처 직원이 참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액 배정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점 발생 시 장애인 고용 여부와 지역 균형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결격사유로는 상근인력 1명 이상 미달하거나 2024년 미정산 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단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총 44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총 지원 금액은 1,762,000,000원(십칠억 육천이백만원)입니다. 지원 인원은 문화예술연수단원 77명(민간), 무대기술인턴 7명(공립 1명, 민간 6명)으로, 총 84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 사업이 예술계의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성과와 계획을 제출한 단체들에게 100%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받은 단체들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청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공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이 예술계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며, 단체와 인력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심의위원 일동